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새로운 주류 소비세율 적용

- 주류 소비세의 연간 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세율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연간 조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신용 서비스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함

알코올 함유량	2023.06.30. 이전 세율	2023.07.01. 이후 세율
A : 1.15~2.5%	0.5594 센트 / 1리터	0.5056 센트 / 1리터
B : 2.5~6.0%	1.6282 센트 / 1리터	1.5665 센트 / 1리터
C : 6.0~9.0%	2.9833 센트 / 1리터	2.6967 센트 / 1리터
D : 9.0~14.0%	3.7291 센트 / 1리터	3.3708 센트 / 1리터
E : 14.0~23.0%	6.3343 센트 / 1리터	5.6214 센트 / 1리터
F : 23.0% 이상	14.4172 센트 / 1리터	12.7345 센트 / 1리터

* 출처 : 뉴질랜드 세관

2. 식품 물가 지속 상승으로 인한 기호식품 구매 여력 감소

-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3년 5월까지 식품물가 지수는 연간 12.5%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음
- 이는 먹거리 물가 통계 조사 대상인 5개 부문 모두에서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특히 전체 먹거리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잡화식품이 12.7%나 오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줌

- 신선한 계란과 감자칩, 사탕(lollies) 가격 인상이 잡화식품의 오름세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 특히, 계란은 여전히 공급난을 보이면서 슈퍼마켓에서는 제한 판매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큰 영향을 준 부문은 과일 및 채소로 연간 18.4%가 올랐으며 아보카도와 고구마, 감자와 토마토가 오름세를 주도
- 레스토랑 및 간편식 식품도 연간 8.7%가 올랐으며 육류와 가공류 및 생선은 11.7%, 그리고 무알코올 음료는 11.6%가 각각 인상됐음
- 월간 통계에서는 올해 4월에 비해 5월 먹거리 가격이 0.3% 올랐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감안한 조정치로도 0.5%가 올랐음
- 월간 상승률에는 청량음료와 에너지 음료, 생수 등 무알코올 음료 가격이 5월에 4.5%나 오르면서 전체 월간 오름세에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해당 기간에 토마토와 감귤, 키위가 내리면서 과일과 채소 부문에서 발생한 가격 하락 폭을 상쇄했음
- 뉴질랜드 식품 가격이 연중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한국식품을 포함한 수입식품은 기호식품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큰 영향을 받음
- '23년 5월 기준 대 뉴질랜드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7.9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음

* 출처 : NZHERALD(2023.06.15.)

3. 주요 슈퍼마켓 가격 동결 리스트 발표

- 슈퍼마켓 체인점인 '카운트다운'이 겨울을 앞두고 가격을 동결하는 300여 개의 기본 식품(basic food items) 리스트를 공개

- 작년에 500여 종의 식품 가격을 동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가짓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채소는 4달러 버섯 한 팩과 10달러 감자 4kg 등 단 2가지뿐임
- 지난 4월 발표된 식품물가지수는 작년 4월에 비해 12.5%나 급등해 국민들 생활 여건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의 독점과 많은 이윤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슈퍼들이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동결을 발표한 바 있음
- 2023년 카운트다운의 가격 동결 리스트에는 5.69달러의 자체 브랜드 우유와 민스 소고기 1kg(16.90달러), 그리고 닭가슴살 1kg(12.90달러) 등이 포함됐는데,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격 동결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파크 앤 세이브’와 ‘뉴월드’를 운영하는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스터프’는 작년에는 카운트다운에 이어 동결 리스트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아직 발표 없이 함구하고 있음
- 푸드스터프 관계자는 상품을 잘 구매하고 매장과 공급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낮추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올해 내내 이 초점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힘
- 슈퍼마켓 체인점들은 작년에 동결했던 상품 중 대부분을 인상했는데, 현재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36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소비자보호원 연구 책임자는 슈퍼마켓이 자체 브랜드를 동결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슈퍼마켓은 공급업체이자 동시에 소매업체도 돼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공급업체보다 시장 지배력도 높아진다고 지적
- 링컨대학의 한 전문가는 뉴질랜드의 식품 유통 체계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되지 못해 비싸다면서, 이를 당장 바꿀수는 없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출처 : NZHERALD(2023.06.01.)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해당 없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1. 회수 식품명 : New World 아오카우테레 브랜드 NZ 소고기 프라임 민스

- 회수 사유 : 이물질(금속조각) 존재 가능성 있음
- 회수일 : 2023년 06월 18일
- 회사명 : NEW WORLD



2. 회수 식품명 : Maketū 파이 브랜드 스테이크 & 버섯 파이

- 회수 사유 : 표기되지 않은 알러지(생선) 성분 함유
- 회수일 : 2023년 6월 21일
- 회사명 : Maketū Foods Ltd



3. 회수 식품명 : New World Hutt City 브랜드 NZ Beef Prime Mince

- 회수 사유 : 이물질(흰색 플라스틱) 포함 가능성 있음
- 회수일 : 2023년 6월 22일
- 회사명 : New World Hutt City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